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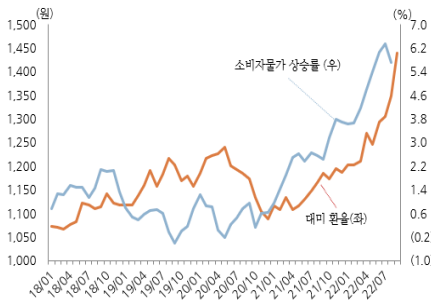
경영 및 정책 과제

1. 보험산업 진단

가. 경기 불확실성과 보험시장 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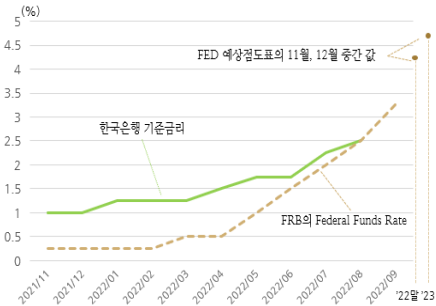
- 한국 경제는 ‘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’의 삼고(三高) 환경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,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보험산업 현안은 시장리스크 관리임
 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.3% 고점을 기록한 가운데, 대미환율은 1,400원을 넘어섰음
 -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한·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면서,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자산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취약가계 및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음

〈그림 IV-1〉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대미환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
〈그림 IV-2〉 한은 기준금리와 미 연준 정책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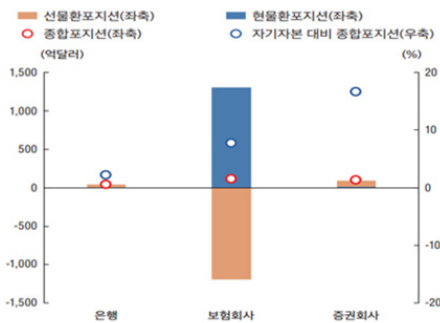
주: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%까지 대폭 (0.5%p) 인상하여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임

자료: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; 미국, FED

- 고환율에 따른 해외투자 환헤지 비용 및 차환리스크 증대와 고금리에 따른 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 향후 저축성보험의 해지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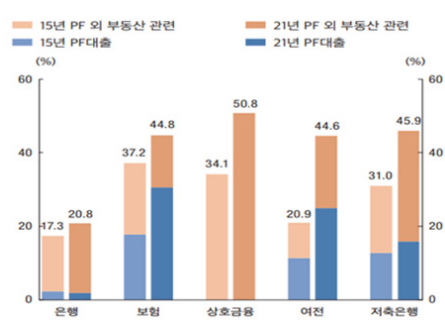
- 보험회사 대출의 경우 은행 등에 비해 취약차주 규모는 작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잠재적 신용위험에 상당히 노출된 상황임
- 또한 부동산PF의 노출 위험도는 지급보증과 선순위 위주로 운용되어왔기에 현재로서는 높지 않으나, 부동산 경기침체 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음
- 한편, 고환율에 따른 환헤지 비용 증가, 1년 단위 퇴직연금 갱신과 2012년 보험시장 성장을 주도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 등이 최근 고금리 환경과 맞물리면서 보험회사는 유동성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〈그림 IV-3〉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



자료: 한국은행(2022. 6), 「금융안정보고서」

〈그림 IV-4〉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비중



주: 상호금융은 PF대출을 따로 구분한 자료가 없어 구분 없이 표시된 것임
 자료: 한국은행(2022. 6), 「금융안정보고서」

나. 제도 불확실성과 새로운 규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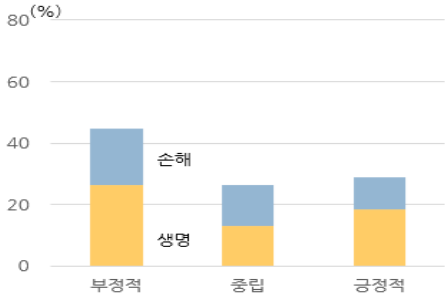
○ IFRS17과 ESG의 국제규범은 보험회사에 장기 시계(Time horizon)와 친환경·친사회 경영을 요구함

- IFRS17은 미래이익(Contract Service Margin; CSM)과 리스크에 관한 정보, 예정과 실적의 차이에 관한 성과 정보, 그리고 보험부채 적용 할인을 정보를 통해 보험회사에 장기 경영, 예정대로의 경영, 상품과 자산운용을 연계한 경영을 요구함
- IFRS-Sustainability는 보험회사의 투자와 언더라이팅 등과 관련한 ESG 리스크와 그 영향에 관한 정보공시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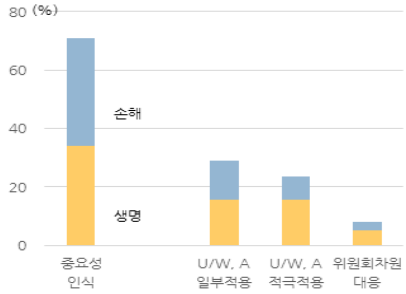
○ 그러나 새로운 규범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, 그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

- CEO 설문 결과, CEO들은 IFRS와 K-ICS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,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도입 효과에 대한 전망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 상황임
- 한편, 대다수 CEO가 ESG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, 실제 시행에서는 아직은 일부 적용에 그치고 있고 회사별 편차도 큰 것으로 보임

〈그림 IV-5〉 IFRS17 도입 이후 물가와 금리 영향 〈그림 IV-6〉 탈탄소, 보험회사 인식과 실행 현황



주: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CEO 총 42명 가운데 38명의 응답에 기초함
 자료: 김세중·김유미(2022), 「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」, 『CEO Report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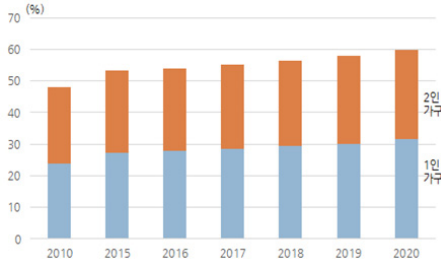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CEO 총 42명 가운데 38명의 응답에 기초함
 2) 탈탄소는 중요성 인식 여부와 언더라이팅(U/W), 자산운용(A), 전사적 위원회 운영 여부에 대한 설문임
 자료: 김세중·김유미(2022), 「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」, 『CEO Report』

다. 수요 불확실성과 인구구성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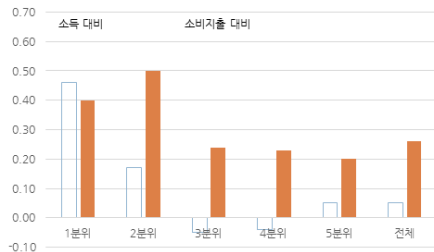
- 기존 보험시장은 4~5인 가구가 개인보험의 주된 수요층이었으나, 인구구성의 변화와 함께 가구 구성이 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보장수요가 보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
- 2020년 현재, 전체 가구의 2/3가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, 4인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1/3에도 미치지 못함
- 한편,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 및 4분위 계층의 보험료지출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, 보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보험 수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
 - 중산층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, 공적 보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낮은 1, 2분위 계층의 보험료지출 비중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IV-7〉 1인 및 2인 가구 구성의 변화


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IV-8〉 소득분위별 보험료지출 비중 변화



주: 2019~2021년 기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(소득 대비)와 소비 지출에서 보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(소비지출 대비)를 나타냄

자료: 통계청; 이태열(2022. 4. 4), 「최근 가구 구성별 보험료지출 변화의 특징」, 『KIRI 리포트』, 보험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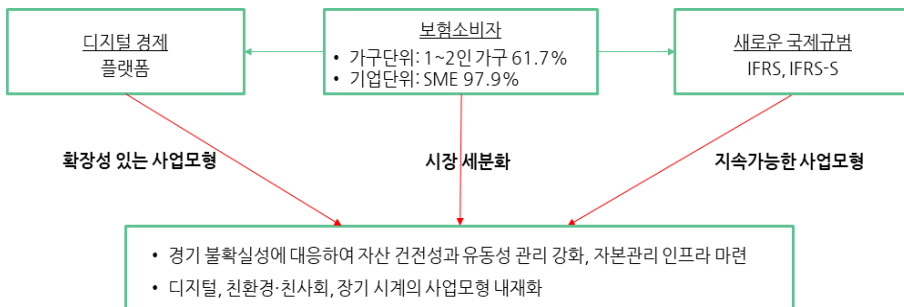
2. 경영·정책 과제

가. 복합 불확실성 대응

○ 보험산업은 경기, 제도, 수요의 복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시장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,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구성 변화와 디지털(Digital) 전환 및 그린(Green) 전환을 사업모형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함

- 디지털 경제의 산업 간 융합에 대응하여 시장 경계를 확대하고,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시장세분화와 유연한 조직으로 대응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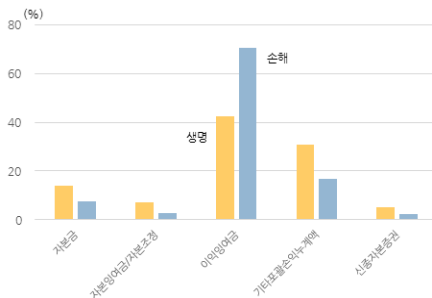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IV-9〉 보험산업의 복합 불확실성 대응



나. 보험시장 리스크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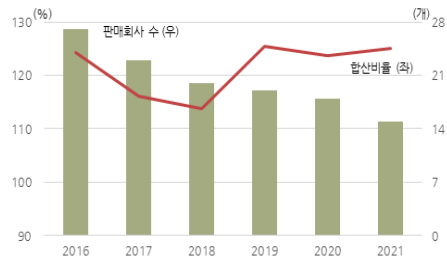
-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자본관리와 보험금관리에 주력하며,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영역으로 역할 강화가 필요함
 - 고물가에 대응한 보험금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 공급을 도모해야 하며, 실손 건강보험의 사례를 교훈 삼아 시장규율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보험가용성을 확대하는 민·관 협력이 필요함
 - 다른 한편으로, 금리 변동 등에 취약한 보험회사의 자본 구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한 런오프, 계약재매입 등의 구조조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

〈그림 IV-10〉 보험회사 자본 구성



자료: 금융통계월보

〈그림 IV-11〉 실손보험 합산비율과 판매회사 추이



자료: 김경선·정성희·홍보배(2022), 「장수하는 고령사회, 준비와 협력(III): 건강보장 정책 방향」, 『CEO Report』, 보험연구원

다. 산업경쟁력 강화

- 시장 경계를 확장하고 상품과 공사협력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‘시장포화’와 ‘보장 격차’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
 - 현 보험시장은 개인보험과 국내에 한정된 시장 경계에서 벗어나 시장포화와 보장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임
 - 1·2인 가구 중심의 소비자 변화에 대응하여 포괄보장형 방식의 시장 접근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새로운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조직을 허용하는 한편,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
 - 1사 다면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운데 위험을 분산 시키고,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기술기업의 진입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IFRS와 ESG 등 새로운 국제규범이 제시하는 장기 시계의 경영과 시장규율, 그리고 시장 규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금융당국 간 공사협력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
 -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업모형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한편, IFRS와 ESG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을 내재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임
 - 새로운 국제규범은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며,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규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험시장의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, 도적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〈그림 IV-12〉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

보험산업 경쟁력 강화	확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시장포화) 개인보험, 국내보험에 한정된 시장 경계 확장 • (보장격차) 포괄보장, 공사협력모델에 대한 재검토
	역동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진입) 빅테크/인슈어테크 비교, 1사다면허제, 판매채널 수수료 • (자율적 퇴출 및 정리제도) 런오프 및 계약재매입 제도, 부실보험회사 지정 및 정리 제도
	지속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시장규율) 새로운 국제규범 관련 평가 및 공시 • (소비자신택) 분쟁 사례연구, 분쟁조정절차 개선